

추사가 난 그림속에 숨겨놓은 메시지는?

〈蘭〉

추사(秋史) 김정희(1786~1856)는 조선 후기 최고의 서예가였다. 특히 그는 금석문(金石文·금속이나 돌 위에 새긴 문양 또는 글씨)의 가치를 재평가한 추사체를 창안했다.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추사의 서예 작품 중 '집계', '대평고회'(大烹高會), '차호호공'(且呼好共) 3점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추사체로 명명되는 김정희의 글씨는 하나의 작품 그 자체다. 글씨가 지닌 독특한 개성과 특유의 구성미는 활발하면서도 고아하다.

이후 문인화풍이 근간이 되었던 데서 보듯 추사의 글씨는 지극히 이상적이다.

글씨도 글씨지만 추사의 그림은 또한 어떤가? 그의 난 그림에서는 우아하면서도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좀더 들여다보면 추사의 난화(蘭畵)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과연 추사는 그림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을까.

홍대 미대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성현 동양화가가 펴낸 '추사난화'는 그림에 적힌 시문을 주목한다.

저자는 지난 2016년 추사의 글씨에 특별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책 '추사코드'를 펴내 세종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된 바 있다.

저자는 추사 선생에 대한 미술사학자들의 치사(微辭)가 화려할수록 오히려 선생은 초라해진다고 본다. 추사의 작품이 지닌



추사난화

이성현 지음

독창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림에 담긴 본뜻을 간과한 탓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추사의 난향(蘭香)을 온전히 음미하기 위해서는 난의 향이 본래 어떠한 것인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화지(畫紙)에 쓰인 글귀만을 쫓지 말고, 추사가 추구했던 정치사상의 핵심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사가 활동했던 당시는 조선 후기 세도정치가 득세를 하던 때였다. 정적의 눈을 피해 시대의 모순을 희파하고자 했던 김정희는 난화(蘭畵) 속에 난화(蘭話)를 숨여 두었다. 그것은 세도가들과 성리학에 매몰된 이들의 눈을 돌리는 대신, 자신의 뜻을 간파한 이들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였다.



세도정치 득세하던 시대의 모순 희파

난(蘭)은 험난한 생존현장서 삶 영위하는 백성

'불이선란' 시문 새롭게 해석해 주목

저자는 특히 추사의 여러 난 그림 중 '불이선란'(不二蘭)을 주목한다. 그림은 가로 31cm, 세로 55cm 크기로 백백하게 글씨가 쓰여 있는 작품이다. 지금까지 '불이선란'의 첫 화제 부분은 '부작난화이십년'(不作蘭畵二十年)으로 시작한다고 알려져 왔다. 이 말을 해석하면 '난 그림을 안 그린 지 20년 만에'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저자는 실제 그림을 통해 그것이 '부정난화이십년'(不正蘭畵二十年)이라고 주장한다. 그 말의 의미는 '영터러 난 그림과 함께한 지 20년 만에'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왼쪽에 있는 화제도 '시위달준방필'(始爲達俊放筆)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이 말은 '처음에 달준이를 위해 그렸으니'라고 해석됐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하지 않은 '달준이'라는 인물을 찾아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것의 원문은 '비위달준방필'(妃爲達俊放筆)이며 이로 인해 뜻은 '왕비가 거만한 결단을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붓을 놀리니'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세한삼우(매, 난, 송)가 사군자

(매, 난, 국, 죽)로 변화된 계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한다. 단순한 취향 변화를 넘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반영된 상징물의 교체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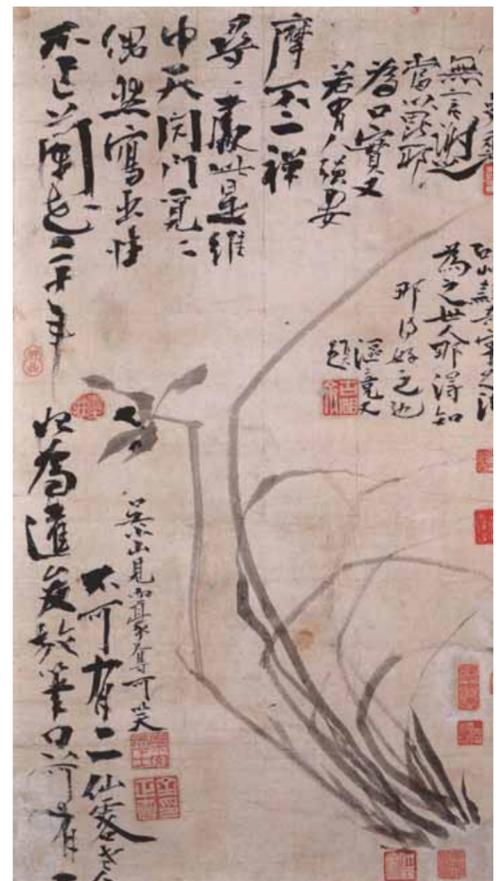
그 예로 중국 요순시대 천자의 물락을 이야기한다. '시경'에서 소나무는 공, 후의 상징이었는데 원의 건국으로 공, 후가 멸망했으니 송의 덕성 또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때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했는데 이때 등장한 지도층 상징이 '난'과 '국'이었다.

저자는 "난이 선비의 고아한 풍격을 상징한다는 세간의 상식과 정반대로 변방의 험난한 생존 현장에서 삶을 영위하던 백성을 상징하던 것"이라며 "난향은 바로 이러한 백성의 요구를 전하는 소식"이라고 설명한다. <들녘·3만5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역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사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김정희 '불이선란'

류커상 지음·하지지 옮김 '흑등고래 모모의 여행'

외롭고 겁 많은 고래 '모모'를 매개로 자연과 인간의 교류를 특유의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우화가 출간됐다. 타이피어도 사전 소설 분야와 비소설 분야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한 대만 최고의 작가 류커상이 펴낸 '흑등고래 모모의 여행'은 한편의 감동적인 우화다.

20년 넘게 대만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스테디셀러로,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 조나단'의 감동을 느꼈던 독자라면 읽어볼 만하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뭘까?" "강을 거슬러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지 몰라."

주인공 모모는 다른 고래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의 일반적인 삶에 의문을 품는다는 것. 싸움, 교배, 번식, 집단사냥 등 고래들에겐 당연한 일들이 모모에게겐 고통스럽기만 하다. 모모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며 자신과의 대화를 즐긴다. 하지만 다른 고래들은 그런 모모를 멸시하고 구박한다.

긴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워지자 모모는 다시 한번 강으로 가는 여정을 택한다. 오랜 기간 마음속에 품었던 의문을 조금씩 풀어나간다.

저자는 흑등고래와 인간의 교감은 물론 다양한 생물에 대한 생생한 묘사까지 바다와 강, 늪지를 넘나들며 생명의 세계를 아우른다. 그러면서 '진정한 나'를 찾아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래 모모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무기력해진 현대인들의 마음을 다정히 어루만진다.

<더숲·1만3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홍승표 지음 '노자와 탈현대 문명'

"탈현대 사회는 사랑의 사회다. 탈현대 사회에서 모든 행위 주체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깊이 존경한다. 탈현대 사회는 원망을 만들지 않는다. 탈현대 사회 구성원들은 매사에 감사한다. 탈현대 사회에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준다. 탈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사랑으로 결합한다."

'노자'에 담긴 탈현대적인 삶과 문명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토대로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다. 계명대 사회학과 홍승표 교수가 펴낸 '노자와 탈현대 문명'은 현재의 인류가 탈현대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탈현대 사회로 들어가는 문은 존재혁명"임을 역설한다. 더 나아가 탈현대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사랑의 사회, 대도(大道)가 행해지는 무위의 사회, 모든 종류의 분쟁이 종식된 부쟁의 사회, 평화로운 사회, '참나'의 발현에 의해 새로운 사회질서가 수립된 사회라고 강조한다.

저자가 노자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25년 전 대학 취업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였다. 우연히 구입했던 문고판 '노자'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노자'가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다면, 상처 입은 현 인류의 마음도 치유해줄 수 있지 않을까?"

책에는 '바보들의 세상', '낙오자가 없는 사회', '무위의 사회질서', '길러주되 주재하지 않는 삶' 등 탈현대적인 삶과 문명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살림터·1만5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곽아람 지음 '아메리카 문학기행-바람과 함께, 스칼렛'

유년시절 부모님의 서재에서 세계명작전집을 발견한 문학소녀는 가슴 한켠에 꿈을 키웠다. 언젠가 책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배경이나 작가가 살았던 곳을 꼭 한번 가보려라고.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6년 오랜 꿈이었던 문학기행을 떠나는 기회를 얻었다.

최근 '아메리카 문학기행-바람과 함께, 스칼렛'을 출간한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가 그 주인공이다.

스스로 '책벌레'라고 부르는 저자는 제작년 하반기부터 1년간 미국 연수를 하며 "상상오만 존재하던 책 속 세계가 실재한다는 것을 증명"해보기 위해 어린 시절 읽은 문학작품을 테마로 미국과 캐나다, 쿠바 등 아메리카 지역을 여행했다.

책은 영화로 더 잘 알려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작가 마거릿 미첼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인공 스칼렛의 명대사들이 탄생한 미국 남부 애틀랜타에 있는 작가의 생가와 남자 주인공 레트 버틀러의 고향인 찰스턴, 스칼렛의 분신과도 같은 농장과 당시 노예들의 오두막 등을 둘러봤다.

또 '작은 아씨들'의 고향인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빨강 머리 앤'이 나온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헤밍웨이가 머물며 작품을 집필한 쿠바 아바나, '마지막 잎새'의 배경 뉴욕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닌다.

여행기인 만큼 사진도 풍성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은행나무·1만6000원>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2016 IDFA 암스테르담국제영화제
2017 영국 세필드국제다큐영화제
2017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들리나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하모니

바나나송의 기적

Singing
with
Angry Bird

2018.03 대개봉

김재창 X 바나나 합창단 | 감독 송우용 지혜원 | 제작 바른미디어 배급 (주)영화사 그림 | CBS

다음 카카오 스토리펀딩을 통해 현지 영화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바나나송의 기적>을 아직 보지 못한 단원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기적을 선물해주세요.
 ※펀딩 참여방법▶ 검색창에 바나나송의 기적 스토리펀딩을 검색해보세요! <https://storyfunding.kakao.com>